

충북과학고, 2년 연속 휴먼테크논문대상에서 '금상' 수상



충북과학고 박새름



충북과학고 신윤수

충북과학고등학교(교장 최동하) 학생들이 삼성전자가 주최하는 27회 '휴먼테크논문대상'에서 금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에 이어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며 과학교육의 메카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을 발굴하고 학교 내 연구 분위기 활성화와 기술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7회째 개최되고 있다.

27회에는 1,991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경쟁했는데 충북과학고는 이번 대회에서 두 팀이 본선에 올라 환경·식품·위생, 화학 분야에서 각각 금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박새름 학생(2학년, 지도교사 황경하)은 '전통발효주의 발효균주를 활용한 커피 발효 및 향미 증진 연구'를 수행해 환경·식품·위생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전통 발효주의 발효 균주를 이용해 발효 커피를 제작하고 화학 분석 결과를 통해 발효주의 미생물로 발효한 커피의 풍부한 향미와 맛의 다양성을 확인했다.

또한, 기존 발효 커피 제작 과정에

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발효 커피 제작 과정에 대한 과학적 공정법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윤수 학생(3학년, 지도교사 이상명)은 'Aniline 유도체를 이용한 형광 변색 pH 지시약 합성 및 활용 방안 탐구'를 수행하여 화학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금상 수상자는 상금 700만원, 장려상 수상자는 상금 100만원을 각각 받게 되고, 동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삼성 3급 신입사원 공채 지원 시 GSAT 면제 특전이 주어진다.

한편, 충북과학고는 1994년 시작된 휴먼테크논문대상에서 2014년 금상·은상, 2017년 은상·장려상, 2018년 은상·장려상, 2019년 금상·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박철우 기자

충북교육청, 지난 '20년 성과와 '21년 계획 점검

코로나 19 대응 교직원 연수 2.5배 이상 증가

충청북도교육청(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2020년 직속기관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진행한 1,405개 직무연수에 2019년 참여한 인원 45,798명보다 250% 이상 증가한 114,829명의 교직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8일 도교육청이 각과와 직속기관이 참여하는 충북교육연수위원회(위원장 김병우)에서 나온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2020년 성과와 2021년 연수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를 갖고 교직원 대상 2020년 연수를 점검하면서 2019년에 비해 연수 실적이 상당히 높은 이유와 과정을 살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연수실적이 높아진 이유는 본청 각과와 직속기관이 협력적 시스템을 갖추고 학교 원격수업을 위한 강좌 개설 등 위기의 시대 현장에 필요한 연수를 적극 개설해 참가자가 증가했다.

또한 현장 교직원들이 불확정성의 시대, 대면 비대면 수업의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의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배움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애쓴 결과로 보고

있다. 충북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올해 충북교육연수 목표를 '사람중심 미래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연수 운영'으로 잡고 운영 방향을 △수업 전문성신장 △미래교육추진 △민주시민교육 강화로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1,069개, 197,528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 본청과 직속기관의 협업시스템을 강화해 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강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연수 운영, 학교 자치 및 자율 운영을 주제로 한 연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안적 연수 운영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은 "연수는 현장 지원의 첫걸음을 명심하고 현장이 요구와 목소리를 잘 듣고 언제나 필요한 연수를 개설하는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신동호 기자

충주국원고, "미안마 해외봉사활동" 국내에서 활동해요

국원고등학교(교장 구분국)은 4년째 이어진 미안마 해외봉사활동을 올해는 국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원고는 세계교육문화원 WECA와 함께하는 미안마 해외봉사 활동을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왔다.

지난해까지는 미안마 양근 쉼비다 초등학교로 가서 학생들이 직접 팔찌 만들기, 전통놀이, 교내 청소 등 봉사 활동을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이 불가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기부 물품 마련을 진행했다.

국원고는 지난해 5월부터 빈곤국가 아동돕기 프로젝트 동아리원(10여명)을 모집하여 봉사활동을 계획했다.

해당 동아리는 충주행복교육지구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대학 연계 청소년 프로젝트 동아리로,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학생들과 연계해



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동아리원들을 중심으로 국원고 1, 2학년 전체 학생들이 미안마 아동들에게 보낼 면 마스크, 예코백 등을 함께 제작했다.

또한 동아리원들은 물병, 손거울, 그림엽서, 스티커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수

익금(96만원 정도)을 마련했다.

학생들이 직접만든 면 마스크, 예코백과 수익금으로 마련된 학용품 등은 지난 4일 오후 1시 교내에서 '미안마 아동돕기 해외봉사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물품은 세계교육문화원 WECA를 통해 미안마 현지로 보낼

예정이다.

2학년 최슬 학생은 "크라우드 펀딩에서 디자인을 하는 역할을 맡아 활동했는데, 직접 디자인한 물품이 후원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좋았다"며,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미안마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활동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학년 유수민 학생도 "평소에 빈곤국가 아동들에게 관심이 많았지만 혼자 무언가를 하지는 못했다"며, "학교에서 동아리로 활동을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관리 등 능동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해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인영 교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후원했던 미안마 아동들을 돕기 위해 국내 활동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었다"며 "참여형 봉사를 통해 세계 시민의식을 길러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신동호 기자

원남초, 그래픽디자인 자격증 취득

음성 원남초 학생 10명 '그래픽기술자격시험'합격

원남초등학교(교장 양철기)5-6학년 학생 10명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개최한 '그래픽기술자격(GTQ)시험'에 도전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컴퓨터 자격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 컴퓨터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 결과 GTQ시험 2급에 2명, 3급에 8명이 합격하는 값진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원남초등학교는 미래사회에 필요

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방과후 컴퓨터 자격증반 운영, SW코딩 교육, 드론교육 등 다양한 정보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5-6학년 학생들이 다양한 컴퓨터 자격시험에 도전, 합격했다.

컴퓨터 교육을 담당한 김혜란교사는 "학생들이 도전과 목표 성취의 경험을 통해 컴퓨터활용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꿈을 펼쳐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기섭 기자

충북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보장 확대

올해 충북 교원들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행사 피소되었을 때 행사방어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덕분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수업이나 학생상담,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주고 있었다.

보험가입 대상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각종학교 소속 교원 약 1만 6천 명이다.

특히, 올해는 배상책임보험에 행사방어비용이 보장되어 교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을 때 변호인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유죄 판결 및 그로 인한 벌과금은 담보되지 않는다.

보상 범위는 사고당 ▲민사 최고 2억 원 ▲형사 최고 5천만 원까지로, 연간 총 보상한도는 10억 원이며 비용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내용 확대 가입과 함께 교원보호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지원, 법률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교권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우 기자

보은교육지원청, 책과 함께 준비하는 보은 지역 학생들의 멋진 새 출발

보은지역 출신 기업인 선배로부터 초·중 신입생 166명에게 도서대와 문화상품권 기증

▲좌측부터 정우정 청주여자고등학교 교장, 박미란 학부모회장, 최훈식 학생회장 아버지

청주여자고등학교(교장 정우정) 박미란 학부모 회장은 지난 8일 청주여고를 방문해 새학년 시작을 앞둔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해 핫팩과 마스크를 1천장을 기부했다.

박미란 학부모회장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모두 고생 많았다"며, "오는 2021학년도 열심히 학교생활에 임할 학생들과 학생들 지도로

열정을 쏟고 계신 교직원분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정우정 교장은 "새학년을 준비하며 학부모님의 마음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고, 교직원들과 함께 더욱 학생들의 교육에 노력하겠다"며, "항상 우리학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힘써주시는 학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박철우 기자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은 보은지역 출신 기업인 IK그룹 김상문화재단이 설립한 재단법인 재산(齎山)으로부터 올해 초·중 신입생 320여 명에게 도서대와 도서문화상품권을 기증받아 입학축하 선물로 전달한다.

바른 독서습관과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책 읽기를 습속기처럼'이라는 문구



가 적힌 도서대와 더불어 책 속 간접경험을 통해 학교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입학생들이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초·중 신입생에게 1인 2만원, 중학교 신입생에게 1인 3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선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기국 기자

청원고등학교, 음악과 문학을 융합한

'고전시를 노래하다' 운영

청원고등학교(교장 강대훈)는 온라인 개학이 시작한 이후부터 창의 융합 예술 프로젝트 '고전시를 노래하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학 교과와 음악 교과 융합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 수업은 융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거시적 안목을 키우고, 프로젝트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원고 학생들의 창작 과정과 작품은 '고전시를 노래하다.' 자료집으로 발간됐으며, 자료집 속 QR 코드를 스캔해 결과물로 만든 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담당자인 윤진 교사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실질적 과제 수행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으로의 변화를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어느 상황에서도 진행 가능한 미디 프로그램을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을 기획했다"며, "협업 활동을 통해 교과 역량뿐 아니라 배려와 나눔의 인성 요소도 함양해 청원고 학생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원고등학교는 이 프로젝트 수업 외에도 예술 융합 수업, 예술동아리 활성화, 학교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다.

/박철우 기자